

P2. 지역별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에 관한 비교연구

김경미*, 최윤지, 안영미¹⁾, 심화섭²⁾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연천군농업기술센터¹⁾·당진군농업기술센터²⁾

1. 서론

도로 등 새로운 교통망의 개통, 정보화 인프라의 진전 등은 농업환경의 변화 못지않게 농촌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변화를 수용하고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 교육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며 농업생산의 주요 노동력인 여성농업인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많으나 산만하게 제공되고 있어 교육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에도(김영옥·김이선, 1999) 사실상 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한 대상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따라 제공되어지고 있는가하는 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농업인 교육을 담당해왔던 농업관련 기관에서 좀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지역의 농촌지도기관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자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과 접근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 교육생에 대한 요구조사와 지역 내 교육관련 자원 분포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2. 본론 및 결론

두 지역 교육생의 요구는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점을 보였다. B군은 A군에 비해 교육생의 평균연령이 적고 평균 농사기간도 짧으나 주로 농촌지도기관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교육비용이 27천여원이 되더라도 부담할 의사가 있었으며(A군은 12천여원), 교육 참석할 때 어려운 점으로 시간부족이 39.2%인 반면 A군은 교통불편이 41.9%에 이르러 차이를 보였다. 장기교육 시 B군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해도 좋은 반면 A군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기를 원하였다. A군은 전통적으로 농사 중심의 기반이 형성된 반면 B군은 농업외적 경제활동도 활발하여 교육생의 요구가 비교적 다양하게 표출되었으나 농촌지도기관에서 다시 기존의 교육생들을 흡수할 가능성은 A군보다 B군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B군은 A군보다 지역 교육기관 중 교육생 참석율이 높았으나 고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중앙단위 또는 전문기관 교육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학습조직체 활성화가 필요하였고 A군의 경우 주변 전문기관과 연계방안이 필요하였다.